

치매센터 개소 삶의 질 향상 주력

무주군, 치료 관리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국가책임제 실행을 위해 지난해 말 보건의료원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한 무주군이 치매 조기발견과 관리에 정성을 쏟고 있다.

27일 무주군에 따르면 60세 이상 치매 환자들이 대한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 인지 증진(재활)과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치매 관련 사회지원 서비스와 연계시키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료원 원장을 센터장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

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며, 보건 의료원 4층에 리모델링 중인 센터(300㎡)가 정식 완공되면 7월부터는 인지강화(치매예방)프로그램실과 인지재활프로그램실, 치매환자쉼터, 가족카페, 검진실, 상담실 등 보다 전문화된 공간에서 상담과 검진, 치료,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 지역 전문병원과 연계해 진행하던 치매진단(감별)검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어서 더욱 기대를 키우고 있다.

현재 6명인 인력도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협력의사 등 1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1%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다보니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돌보는 가족들의 어려움이 큰 질병인 만큼 이들 삶의 질에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의료원과 지소, 진료소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전담팀이 관내 경로당과 생활터, 장터를 찾아가 예방 교육과 함께 검진을 실시하는 등 치매조기발견에도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3,022명에 대한 치매 선별검사와 50명에 대한 정밀검진을 진행했으며 2천여 명이 치매예방교육을 비롯한 인지증진,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투어패스카드로 진안 토탈관광 즐겨요”

군 산하 전 직원, 진안 알리기 총력

진안군은 투어패스카드를 활용해 진안에서 토탈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과 함께 군 산하 전 직원이 투어패스카드 체함에 나서면서 진안 알리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어패스는 토탈관광 실현을 위해 도입한 전북도정 3대 핵심 사업으로 카드 한 장이면 전북도내 전역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들을 무료로 특별할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토탈관광 슬로건인 ‘한곳 더!, 한번 더!, 하루 더!’ 방문 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토탈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안군은 마이산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자유이용가맹점인 명인명품관, 마이골 작은영화관, 진안고원 치유의 숲, 가위박물관 4개소와 족욕카페, 홍삼한방판매장 등 57개소의 특별 할인 가맹점을 확보함으로써 투어패스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가맹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투어패스 판매 전략을 수립해 2017년도에 5,650매를 판매하면서 14개 시·군 중 세 번째 판매실적을 올렸다. 올해에도 군 산하 전 직원이 2개월(4~5월)동안 투어패스 가맹점을 돌며 체험하고 홍보함으로써 현재까지 투어패스카드 1,500여 매의 판매고



진안군은 홍삼한방판매장 등 57개소의 특별 할인가맹점 확보, 투어패스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가맹점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를 올리고 있다. 올해 자유이용가맹점으로 등록된 명인명품관은 지난해 12월 개장한 전시판매장으로 부채관, 자수관, 한지관에서 명인들의 시연과 함께 다양하고 독특한 전시품이 준비되어 있다.

명인명품관 위쪽에 자리 잡은 가위 박물관은 영국 황실가위,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의료용 가위 등 역사와 스토리가 담긴 전시품들로 관람객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군은 마이산권역에 집중적으로 배치

된 다양한 전북투어패스 가맹점을 이용하는 토탈관광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관광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가맹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군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적극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스탬프 투어, 현수막 게시, 길거리 홍보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용담면민의회장 수상자 선정

5월 12일 용담면민의 날 기념식서 수여

진안군 용담면(면장 육원문)은 26일 제23회 용담면민의 날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자는 공익장에 김철영(48)씨, 산업장에 김동근(66)씨, 애향장에 김광호(75)씨, 효향장에 고금용(77)씨로 각각 결정했다.

공익장 수상자 김철영씨는 현재 용담면 체육회회장 직을 수행중이며 면민의 체육활동과 4개 군 축구대회를 적극 유치·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단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했다.

산업장 수상자 김동근씨는 40여년간 인삼을 경작하면서 축적한 재배기술과 친환경 인삼재배 노하우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고품질 인삼생산량 증대에 기여했다.

애향장 수상자 김광호씨는 용담 소방마을 출신으로 출향 이후에도 10여년간 향우를 위하여 재경향



공익장 김철영



산업장 김동근



애향장 김광호



효향장 고금용

에 혼자 사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을 왕래하는 등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용담면민의 날은 다음달 12일 용담면 체력공원에서 개최되는 제23회 용담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며 어울림한마당에서 각종 공연, 체육경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출향인과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배달음식점 대상 위생 점검 실시

오는 5월 10일까지

무주군은 오는 5월 10일까지 관내 배달 전문 음식점 7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무주에 걸 맞는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들이 함께 동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점검 팀이 업소를 방문해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여부부터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유류기 한 경과제품 조리 판매 행위,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황복숙 식품위



생 담당은 “기온이 올라가 식중독 등 질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식품위생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다”라며 “적발을 위한 점검이 아닌 업주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